

2019년 1월 2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S&P500, 경기 자신감 표명으로 상승 전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73%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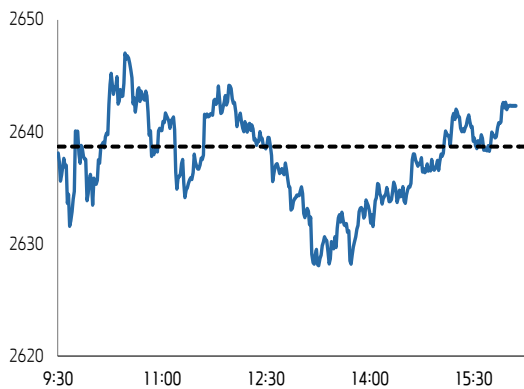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반도체 업종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등락에 그침.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 발언으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지속되자 하락 전환. 한편,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 다만, 장 후반 커들로가 고용의 견고함을 언급하는 등 미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하자 S&P500 상승 전환 성공(다우 -0.09%, 나스닥 +0.68%, S&P500 +0.14%, 러셀 2000 +0.70%)

미 증시는 ①반도체 업종 급등 ②제약업종 하락 ③미-중 무역분쟁 ④경기둔화 부각 등에 의해 변화. 반도체 업종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6.91), 램리서치(+15.70%), 자일링스(+18.44%), Teradyne(+12.87%), ST 마이크로일렉트릭(+10.78%) 등이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안도랠리를 보였음. 특히 장비업종인 램리서치의 경우는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자 급등.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73% 급등. 반면, 화이자(-2.87%), 머크(-3.01%) 등 대형 제약 업종은 전일 '특허 절벽'과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여건 및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짐.

한편, 대 중 강경파 중 하나인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은 아직 멀었다" 라고 주장하며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 특히 중국이 수입을 발표한 "대두, 밀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정상적이고 공정한 무역이 이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 더불어 "제조 2025 을 강화시키지 말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의 압박이 없이 사업을 영유해야 한다" 라고 언급. 결국 30~31 일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무역분쟁 경계감을 유지. 또한 ECB 통화정책 이후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 전망은 하방으로 이동 중이다" 라고 주장해 경기 둔화 우려 표명.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락 및 섣달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투자심리 악화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동률	국가	지수	변동률
지수	Close	D-1	지수	Close	D-1
KOSPI	2,145.03	+0.81	홍콩	27,120.98	+0.42
KOSDAQ	704.41	+1.26	영국	6,818.95	-0.35
DOW	24,553.24	-0.09	독일	11,130.18	+0.53
NASDAQ	7,073.46	+0.68	프랑스	4,871.96	+0.65
S&P 500	2,642.33	+0.14	스페인	9,150.00	+0.23
상하이종합	2,591.69	+0.41	그리스	632.34	+0.16
일본	20,574.63	-0.09	이탈리아	19,564.48	+0.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에 힘입어 급등

텍사스인스트루먼트(+6.91%), 램리서치(+15.70%), 자일링스(+18.44%) 등은 전일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발표로 급등 했다. Teradyne(+12.87%)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10.78%)도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했다. 마이크론(+6.86%), AMAT(+10.23%), KLA-텐코(+7.01%)와 아나로그디바이스(+6.63%), 웨스턴디지털(+6.70%), NVIDIA(+5.73%)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3.80%)은 매출 부진과 가이드언스 하향 조정으로 시간 외로 7%넘게 급락 중이다.

포드(+3.12%)도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GM(+1.30%)도 동반 상승 했다. 유니온퍼시픽(+3.89%), 아메리칸에어라인(+6.35%), 사우스웨스트항공(+6.25%) 등도 양호한 실적으로 상승 했다. 반면, 제약업체인 머크(-3.01%), 화이자(-2.87%)는 특허절벽과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에브비(-2.91%)도 동반 약세를 보였으며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브리스톨마이어스(-1.88%)도 하락 했다. 광산업체인 프리포트-맥모란(-13.08%)은 실적 둔화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7%	대형 가치주 ETF	+0.19%
에너지섹터 ETF	+1.83%	중형 가치주 ETF	+0.54%
소매업체 ETF	+0.37%	소형 가치주 ETF	+0.57%
금융섹터 ETF	+0.23%	배당주 ETF	-0.16%
기술섹터 ETF	+0.84%	변동성 ETF	-3.25%
소셜 미디어업체 ETF	+1.29%	대형 성장주 ETF	+0.32%
인터넷업체 ETF	+0.56%	중형 성장주 ETF	+0.89%
리츠업체 ETF	+0.40%	소형 성장주 ETF	+0.72%
주택건설업체 ETF	+1.45%	신흥국 고배당 ETF	+0.56%
바이오섹터 ETF	-0.0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0%
헬스케어 ETF	-0.84%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06%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5.89%	Long/short ETF	-0.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9.26	+0.60%	+0.25%	+15.28%
소재	326.45	-0.56%	+0.71%	+10.07%
산업재	582.23	+0.56%	+2.15%	+14.73%
경기소비재	838.30	+0.53%	+0.91%	+15.87%
필수소비재	532.15	-1.30%	+0.43%	+6.30%
헬스케어	1,027.70	-0.86%	+0.61%	+10.01%
금융	427.97	+0.20%	+1.39%	+15.51%
IT	1,141.51	+0.93%	+1.72%	+12.87%
커뮤니케이션	147.23	+0.03%	-0.80%	+12.51%
유틸리티	274.39	+0.48%	+2.27%	+4.85%
부동산	203.24	+0.39%	+1.10%	+9.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인텔 여파로 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710 계약)에 힘입어 1.30pt 상승한 278.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7.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 관련 업종이 견고한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3% 급등 했다. 그러나 이는 전일 한국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제한된다. 여기에 미 증시 마감 후 인텔이 매출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발표하자 시간외로 7% 넘게 하락하고 있어 차익욕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아직 멀었다라고 주장한 점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로스 장관은 대 중 강경파 중 하나이며 언급했던 '지적 재산권' 관련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 둔화' 이슈가 재부각되기는 했으나, 미국의 제조업지표 및 고용지표 개선으로 관련 우려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이 또한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섯다운을 둘러싼 트럼프와 민주당간의 격화된 반응은 여전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1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 발표치(53.9)나 예상치(53.5)를 상회한 54.9 로 발표되었다. 이는 12 월 산업생산에서 제조업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하는 등 제조업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 만 2 천건) 보다 감소한 19 만 9 천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또한 지난주(22 만 5 백건) 보다 감소한 21 만 5 천건에 그쳐 견고한 고용시장을 시사했다.

12 월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달 발표치(mom +0.2%)를 하회한 전월 대비 -0.1%로 발표되었다. 전반적으로 섯다운 이슈가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

1 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6) 보다 소폭 하락한 5 로 발표되었다. 다만 예상치(2) 보다는 양호했다. 특히 제조업생산지수가 전월(-13) 보다 개선된 2 로 회복된 점이 특징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가능성 제기로 상승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감소에 따른 공급감소 이슈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다만, EIA 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800 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양호한 제조업지표 및 고용지표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에서 드러난 ECB 총재가 “유로존 경기는 하방으로 가고 있다” 라고 언급하는 등 보다 비둘기파적으로 변모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달러 대비 약세폭을 축소했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자 하락 전환 했다. ECB 가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둔화를 언급하는 등 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화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이 “1 월 고용은 상당히 좋다” 라고 언급한 이후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도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철근은 1.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13	+0.97	+0.99	Dollar Index	96.520	+0.41	+0.47
브렌트유	61.09	-0.08	-0.15	EUR/USD	1.1314	-0.59	-0.66
금	1,285.90	-0.33	-1.11	USD/JPY	109.58	-0.02	+0.29
은	15.300	-0.52	-2.16	GBP/USD	1.3060	-0.07	+0.57
알루미늄	1,890.50	-0.97	+1.75	USD/CHF	0.9962	+0.13	+0.20
전기동	5,922.00	-0.50	-1.17	AUD/USD	0.7096	-0.64	-1.35
아연	2,640.00	+0.76	+3.65	USD/CAD	1.3352	+0.07	+0.55
옥수수	377.00	-0.46	+0.80	USD/BRL	3.771	+0.31	+0.65
밀	521.50	-0.86	+1.76	USD/CNH	6.7954	+0.03	+0.29
대두	916.00	+0.11	+2.40	USD/KRW	1128.60	+0.12	+0.54
커피	105.30	+1.84	+2.83	USD/KRW NDF1M	1127.65	+0.19	+0.6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12	-2.88	-3.83	스페인	1.237	-7.40	-12.40
한국	1.992	+0.70	+1.50	포르투갈	1.648	-6.30	-10.50
일본	0.011	+0.60	+0.50	그리스	4.125	-3.30	-7.60
독일	0.180	-4.50	-6.30	이탈리아	2.658	-9.30	-10.50